



‘지지부진’ 여수 경도 관광단지 개발 본궤도 오른다

해상교량 2개 연결 1.35km 진입도로 내달 첫삽
장기 난항 ‘경호초교’ 이전 작업도 가시화 전망

200년 착공 이후 지지부진한 모습을 면치 못하고 있는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드디어 본궤도에 오른 전망이다. 여수 육지부와 경도를 연결하는 해상교량인 경도지구 진입도로가 7월 착공하는 데 이어, 오랜 기간 난항을 겪어온 경호초등학교 이전 작업도 7월 중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전남도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경도지구 진입도로(연륙교)가 7월 첫 삽을 뜬다. 광양경제청이 발주한 1천189억원(총사업비 기준) 규모의 경도지구 진입도로는 여수시 신월동-야도-대경도를 잇는 해상교량으로 총연장 1.351km(폭 13.5m-19.3m, 왕복 2차로)다. 신월동-야도 구간 신월경도대교1(450m·세계 최초 역대칭 덩어리 아치교)과 야도-경도 구간 신월경도대교2(655m·국내 최장 곡선 1주탑 비대칭사장교) 등 총 2개의 해상교량이 들어선다. 평면교차로 3개소, 복합섬터 1개소, 전방대 4

개소 등도 설치된다. 진입도로 시점부 집단 민원 해결 이후 지난해 7월 실시설계가 완료됐으며 그동안 관계기관 협의 과정을 거쳤다. 지난 4월엔 여항개발사업 시행 관련 해양수산부-여수해수청 협의가 마무리됐다. 현재 남아 있는 절차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 인정 협의로 이달 내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도 진입도로가 완공되면 글로벌 관광단지로 육성 중인 경도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경도 내에 있는 경호초등학교 이전 작업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광단지 사업 부지 내에 위치한 경호초교 이전 작업은 200년 12월 이전 협약을 체결한 뒤 3년 가까이 난항을 겪어왔다. 당시 미래에셋과 전남도교육청은 경호초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선 학교 이전, 후 개발 공사’에 합의한 바 있다. 지난 3월 시공사를 선정했으며 5월엔 학교 시행계획 승인서를 제출했다. 현재 마

지막 절차인 학교 축조승인 도서 검토·협의를 진행 중이다. 학교 축조승인이 떨어지면 7월 중 곧바로 착공해 2025년 3월 이전 개교를 목표로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은 미래에셋이 총사업비 1조5천억원을 투입해 남해안 관광 거점이자 동북아 해양관광

의 허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미래에셋은 2017년 1월 전남도, 전남개발공사, 여수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등과 사업 협약을 체결했으며 2019년 말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이어 2020년 6월 11일 착공식을 가졌다. 싱가포르 센토사를 롤모델로 삼아 경

도 215㎢ 일원에 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과 해상케이블카,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휴양단지로 조성하고 있다. 전남도는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을 통해 1만6천614명의 고용효과, 2조6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등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진입도로 공사가 시작되고 경호초교 이전도 속도를 내면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이 본궤도에 올 것”이라며 “여수를 중심으로 한 동부권 관광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광주목사 출정행렬’ 재현. 흥겨움과 즐거움으로 지역사회 번영을 염원하는 ‘2023 광주사적단오축제’가 지난 24일 남구 사직공원 관덕정 일대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열렸다. 이날 참가자들이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사적대제를 지내기 위해 관청을 나서서 ‘광주목사 출정행렬’을 재현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이낙연 귀국 “못 다한 책임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년간의 미국 체류를 마치고 귀국했다. 지난 24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이 전 대표는 귀국 일선으로 “저의 못 다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누가 들어도 정치 활동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강한 어조로 “모든 국정을 재정립하라”며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일각에서는 친낙(친이낙연)계를 비롯한 비명(비이재명)계가 지속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해왔다는 점에서 그가 당내 비주류 규합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 전 대표가 당분간 당내 상황에 대한 직접적이거나 자극적인 발언은 자제할 것이라는 게 친낙계 측근들의 전언이다. 여기에는 내년 총선을 ‘이재명 체제’로는 치르기 어렵다는 위기 의식이 당안팎에 고조되면 자연스레 이 전 대표의 역할론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예상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전 대표는 7월부터 전국 순회 강연을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강연은 자신의 전문 분야인 외교 정책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한편,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김진수 기자

“풍수해 막아라” 광주시·전남도 총력 대응

장마 본격 시작...내일까지 최대 200mm 집중호우
市, 분야별 계획 수립 비상 대응체계 구축 가동
道, 재산피해 최소화·인명피해 없도록 대책 추진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광주·전남도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5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광주·전남에서 시작된 장맛비가 27일까지 최대 200mm 이상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전남 17개 시·군(완도·고흥·보성·여수·장흥·강진·해남·신안·진도·구례·광양·순천·영암·무안·함평·영광·목

포)과 거문도·초도·흑산도·홍도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27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80-150mm로 전남 일부 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200mm 이상 내릴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광산구 우산동 우수저류시설 공사 현장을 찾아 호우대비 안전관리 대책과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장마 대비를 지시했다.

강 시장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 4월부터 장마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빗물받이·맨홀 등 하수시설물 ▲산사태 우려 지역 ▲대형 공사현장 ▲반지하 등 재해 취약주택 등에 대한 여름철 풍수해 대응 계획을 분야별로 수립해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전남도도 이날 오후 도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김영록 지사 주재로 호우피해 대비 재난대책보급회를 개최했다. 이날 15개 시·군이 여름철 풍수해 자연재난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인명피해 우려지역 집중 관리 및 법도인 홍보,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긴급 구조대책, 산사태 우려지역 관리 및 주민 대피 훈련, 사회복지시설·취약계층 안전점검 및 의료·방역체계 구축 등 여름철 풍수해로부터 도민 피해 최소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도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 피해는 없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산림·복합·건설·농림·해양 등 각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재정·박선강·안재영 기자

Today
 시·자치회수시시설 유치 경쟁 치열 2면
 기동병원, 심야아동병원 선정 5면
 커지는 대중국 수출 적자 대책은 12면

- 제10회 -

무등산

문학백일장

광주매일신문은 유구한 문학의 산실인 호남 향토문학정신을 계승하고 가사문학을 부흥해 지역의 문학미대를 이끌어갈 참신하고 역량 있는 청소년 및 문예인을 발굴하고자 제10회 무등산 문학백일장을 개최합니다.

한국문학의 미래를 짊어질 예비문인 발굴과 창작의지를 높일 수 있는 이번 백일장에 글쓰기와 문학에 관심있는 청소년을 포함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응모 부문 ① 시 ② 산문(스토리텔링)

작품 주제 ① 무등산 및 지역향토성 관련 자유주제
② 가사문학 관련 자유주제 (스토리텔링은 인물, 플롯, 주제가 담겨있는 창의적인 작품)

응모 방법
 - 응모대상 : 일반부 / 전국 청소년(중·고생)
 - 원고분량 : 시(1인당 3편) / 산문(1인 1편, 5천~6천자 내외)
 - 응모마감 : 2023년 8월 31일 마감
 - 입상자 발표 : 2023년 9월 8일(금) 본사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보내실 곳 : 무등산 문학백일장 홈페이지(<http://gasa.kjdaily.com>)
 - 문 의 :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9)

기 타
 - 응모 작품 사안에 이름, 주소, 전화, 이메일, 학생부(학교명, 학년) 기재할 것
 - 기존 발표작이거나 표절사실이 발견되면 수상이 취소됨.

주최·주관 광주광역시문인협회 · 광주매일신문